

1930年代 할리우드 스타 마를레네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 研究

鄭素映* · 曹圭和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講師*, 梨花女子大學校 衣類織物學科 教授

A Study on the Fashion Style of Hollywood Star Marlene Dietrich in 1930s

Chung, So-Young* · Cho, Kyu-Hwa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yle of Marlene Dietrich who was a Hollywood legend in 1930s and has influenced on modern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Dietrich style showed androgyny, sensualism and exoticism. Dietrich has been famous for wearing tailored pantsuit on and off-screen with mannish gesture and had great effect on women's wearing pants. Her confident, sexy mannish style represented her androgyny glamorously and proved she had a taste for a classic. Her sensualism focused on her famous legs because she understood the sex appeal of woman's legs. She showed her legs by wearing pants and decorative stockings, or matching colors of stockings and shoes to make her legs look longer and sexier by illusion. Her exoticism against a backdrop of black and white image, was presented with luxurious, sensual fabrics such as furs, feathers and velvet, along with dazzling accessories. Also she didn't forget to manipulate angles of camera and lights for the engraving figure of her own. Her charisma directed her fashion image in detail and made herself a fashion icon in 1930s.

Key Words : Marlene Dietrich(마를레네 디트리히), Hollywood glamour of 1930s(1930년대 할리우드 글래머), androgyny(양성성), sensualism(관능성), exoticism(이국성)

I. 서론

21세기 현대 패션산업은 스타를 통한 직접 또는 간접 홍보와 마케팅 속에서 글래머 이미지를 핵심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 오늘날 패션쇼 무대나 화려하게 차려입은 스타들이 참석하는 영화 시상식과 관련되는 글래머(glamour)¹⁾는 각종 컬렉션의 테마와 대중문화에서 비중 있는 미학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두드러진 패션 테마로서의 글래머는 본래 1930년대 할리우드 패션과 영화 속 배경이 구현한 미적 특성에서 기원한 것이다. 할리우드 글래머(Hollywood Glamour)의 절정기²⁾였던 1930년대 영화배우들은 글래머러스 이미지를 구현하며 대중들의 우상으로서 패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글래머는 자극적이고 때론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매력, 특히 매혹적이거나 황홀케 하는 개인적, 신체적 매력³⁾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특히 1930년대 글래머는 '성적매력과 럭셔리 감각, 우아함과 로맨스'가 결합된 의미이다⁴⁾. 이는 할리우드 영화 속 상류층의 화려로운 생활과 멋진 영화의상을 입은 스타의 모습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20세기 말 복고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주목 받은 글래머는 과거 유명 영화배우에게서 영감을 얻고 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소개한 경우가 많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거의 한 세기를 뛰어넘어 현대인이 과거의 영화를 즐기고, 영화 속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미지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에게 영감을 주는 등의 교감을 가능하게 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어 1930년대 여성미를 대표하는 마를레네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 조안 크로포드(Joan Crawford) 등은 당대 일반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스타들로 오늘날까지 은막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현대패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할리우드 스타로서 2003년 프랑스 파리의 Musée Galliera에서 열린 전시 'Marlene Dietrich, the Creation of a Myth'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글래머, 우아함, 유혹의 정수'로 평가⁵⁾받고 있다. 또한 2004 S/S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의 컬렉션 테마가 '21세기 마를레네 디트리히'인 것을 비롯하여 유행에서 팬츠 슈트가 회귀할 때마다 남성복 차림의 디트리히의 패션 이미지가 빠지지 않고 등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트리히는 1930년대 할리우드의 글래머, 성정체성, 팜프 파탈 등에 관한 연구⁶⁾에서 자주 언급되어왔다.

1930년대 당시 할리우드에는 디트리히 외에도 그레타 가르보, 캐더린 헵번(Katharine Hepburn) 등이 팬츠 스타일을 선호하여 당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⁷⁾, 안티 글래머를 표방하며 남성복 스타일을 선호했던 두 스타와는 달리 디트리히는 글래머러스한 여성미의 새로운 표현으로 포멀 매니시 스타일을 대중들에게 선보였고, 오늘날까지 클래식으로 인정받는 앤드로지니의 관능미를 이해한 선구자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남성복 차림 외에도 오늘날까지 세련된 글래머 스타일을 대표하는 그녀의 패션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패션 스타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다루어진 1930년대 할리우드 스타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193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 마를레네 디트리히와 그녀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서적, 정기간행물로 이루어진 문헌연구, 영화전문 웹사이트, 영화안팎의 패션을 보여주는 사진자료에 대한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내용은 이론적 배경으로 1930년대 할리우드 스타가 글래머를 구현하며 패션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약력과 패션 스타일을 고찰하여 요약, 결론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930년대 글래머러스한 할리우드 스타가 대중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리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당시 할리우드 시스템, 스타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개인맞춤 영화의상과 디자이너, 그리고 그 상업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1. 1930년대 할리우드 시스템

1930년대는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경제적 공황 속에서 현실도피를 위한 대중오락인 할리우드 영화의 황금기⁸⁾였으며, 할리우드는 대중들에게 로맨스와 글래머를 제공하는 꿈의 공장⁹⁾이라 일컬어졌다. 할리우드는 1929년 대공황시기를 거치면서 독과점 체제인 스튜디오, 스타, 장르로 연결된 시스템을 성립하였고, 그 속에서 견고한 제작양식 또는 미학적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경비절감과 흥행의 안정성 추구를 위해 정착된 스튜디오 시스템 내에서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 배우, 제작진 등이 장기 계약을 통해 작업하면서 많은 통제를 받았다. 또한 스타의 발굴, 영화제작 기술진의 훈련, 세트의 건축 등을 철저히 감독하고, 영화의 모든 요소들이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제작되도록 하였다. 영화 제작사들은 영화관객 확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극장 체인망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1930년부터 1948년까지 제작, 배급,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독점 구조가 확립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5개의 메이저로 파라마운트, MGM, 20세기 폭스, 워너 브러더스, RKO가 있었고, 3개의 마이너로 유니버설, 컬럼비아, 유니티드 아티스트¹⁰⁾를 들 수 있다. 스튜디오 시스템 하에서 각 스튜디오마다 독특한 스타일이나 특징이 발생하여 MGM의 경우, 많은 여성 스타들이 소속되어 화려한 의상과 공들인 세트,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화면의 고급 멜로 드라마로 명성을 누렸다. 파라마운트는 코미디와 성적 환타지의 유럽스타일을 대표하며 마를레네 디트리히를 비롯한 메이 웨스트(Mae West), 클로렛 콜버트(Claudette Colbert) 등이 성에 관련된 유머감과 재치 있는 언변을 보여주었다¹¹⁾.

한편 영화의 제작과 배급, 흥행 등 전 과정에서 스타의 역할을 전제로 하는 스타 시스템¹²⁾은 이 시기에는 이미 영화산업의 중추로 자리를 잡았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공적, 사적 활동이 스튜디오의 막강한 권력과 통제 하에 있었던 당시 스타들은 영화 외적인 삶도 영화속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 스타들은 영화마다 일정한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연기하면서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이미지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스튜디오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토대로 대중들이 원하는 스타의 이미지를 반복하여 보여주는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였고, 각 스타만의 고정적인 스타 이미지가 존재하게 되었다¹³⁾. 따라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특정 이미지의 스타는 한 개인을 넘어서 대중의 욕망을 구현하고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면서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스타들의 고정된 이미지가 변화하는 시대와 대중의 취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경력 연장에 걸림돌이 되었다. 1930년대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양성적이고 이국적인 얼굴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 인기를 누렸던 그레타 가르보는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유럽 시장을 잃은 스튜디오에게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40년대에는 활동을 접어야 했다¹⁴⁾.

또한 1930년대에는 장르 중에서 매력적인 남녀의 사랑을 다룬 로맨틱 멜로 드라마 혹은 '여성 영화(women's pictures)'들이 스타 시스템에 의해 절정을 누리면서 일반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 당시 여성들은 할리우드 영화의 주 소비자로서 할리우드 스타와 흥행 영화의 결정, 할리우드 패션의 상품 판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도 내용과 주인공을 직장 여성들과 관련된 것으로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돈을 좋아하는 여성, 직장 여성의 계층상승을 원하는 여성들의 야심에서부터 금기시하던 여성의 양성성과 이국주의 등 여성의 권력에 대한 것이 두드러졌다¹⁵⁾.

2.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과 디자이너

영화의상 제작을 위한 전문디자이너가 1920년대에 고용된 이래 1930년대 스튜디오는 자체 의상제작실에 수석 디자이너를 고용, 영화배우의 의상을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할리우드 스타 뒤에는 이미지 창조와 조력자로서 할리우드 디자이너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철저한 영화대본 분석을 토대로 극 전개에 적합하고 상징성을 지닐 뿐 아니라 각 스타의 개성과 패션 스타일에 맞게 의상을 창조해냈다.

1)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

최고 인기 스타의 의상은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고, 스타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개성을 부여하며, 키, 외모나 체형의 어떤 단점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했다. 할리우드 영화의상은 파리의 유명 쿠튀리에들이 부유한 고객들을 위해 해왔던 전통적인 디자인 접근법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매력을 지녀야 했다¹⁶⁾. 샤넬(Chanel)과 스키피아렐리(Schiaparelli) 같은 명망 있는 파리의 디자이너들이 영화의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것¹⁷⁾은 쿠튀르 스타일이 스크린에서 잘 전달되지 않았고 스타의 호소력과 효과를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할리우드 영화의상의 성공은 여배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지, 흑백 사진이나 초기 컬러 사진에서 돋보이는지,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었다¹⁸⁾.

할리우드 글래머를 구현한 영화의상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순한 형태로 재단된 드레스는 여배우의 등을 노출하는 할터 네크라인 등 인상적인 디테일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스타의 얼굴 화장과 헤어의 화려함, 눈부신 장신구, 모피, 벨벳, 새틴, 레이스 등의 사치스러운 직물, 카메라의 기술적 효과와 빛에 의한 흑백의 대비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단순한 스타일을 보완하였다. 특히 마들렌느 비오네(Madeline Vionnet)가 1929년 소개한 바이어스 재단의 할터 네크라인 이브닝 드레스는 1930년대 할리우드의 글래머러

스 여성 이미지를 표현¹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할리우드에서 등을 노출하는 디자인의 유행은 헤이스 코드(the Hays Code)라는 영화검열이 계기가 되었다. 특정 언어와 주제, 행동이 스크린 상에서 금지되고, 여성의 가슴사이의 골을 노출하는 드레스가 금지되었지만 등이 드러난 할터 네크라인 드레스는 가슴 노출의 논란 없이도 감각적인 섹시 룩을 창조할 수 있었다²⁰⁾. 이처럼 할리우드 패션이 의외로 단순하고 유행을 타지 않은 일정한 형식을 갖게 된 것은 영화의상 제작 시점과 영화 개봉시기 간의 차이에서 오는 패션 경향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다²¹⁾.

이처럼 스토리, 캐릭터를 보완하고 미래의 개봉 시기의 패션경향을 고려하여 관객들을 매료시키도록 창조된 영화의상은 결과적으로 할리우드 글래머와 대중취향이 양립할 수 있는 할리우드 패션양식을 띠게 되었다.²²⁾ 즉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그대로 대중들이 입을 수 있게 창조된 영화의상은 대중 패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2) 1930년대 할리우드 영화의상 디자이너

할리우드의 영화의상 디자이너들은 스타 개개인이 패션리더로서 당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 조력자이자 나름대로 패션철학을 가진 예술가들이었다. 비록 할리우드 디자이너들이 대중패션 시장에 집중하지 않았지만, 다수가 뉴욕과 파리의 살롱에서 훈련을 받거나 살롱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²³⁾ 대중패션의 흐름에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대중이 원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1930년대 대표적인 영화의상 디자이너로는 길버트 애드리안(Gilbert Adrian), 트레이비스 밴튼(Travis Banton), 월터 플러켓(Walter Plunkett), 월터 오리-켈리(Walter Orry-Kelly) 등을 들 수 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길버트 애드리안은 당대 스타 그레타 가르보와 조안 크로포드, 캐더린 헵번의 영화의상을 담당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가장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던 작품은 <레티 린튼>(1932)에서 조안 크로

포드를 위해 디자인한 러플로 풍성한 어깨의 오건디 드레스였다. 일반 여성들이 그 복제품을 사 입었고, 할리우드의 다른 의상디자이너들도 영감을 받아 유사한 작품을 선보였다. 레티 린튼 드레스는 영화가 등장한 이후 패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²⁴⁾. 흑과 백 이미지 영화의 거장이었던 그는 등장인물에 극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명암의 강한 대조를 선호했고, 컬러 영화로 작업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²⁵⁾. 1941년 할리우드를 떠나 1942년 기성복과 맞춤복 디자이너로 변신한 애드리안은 세계대전 중 넓은 어깨 실루엣의 여성 슈트로 명성을 얻어 영화의상 디자이너 뿐 아니라 기성복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²⁶⁾.

트래비스 밴튼은 뉴욕의 마담 프란세스(Madame Frances)의 쿠티르 하우스에서 상류사회 여성과 영화배우들의 의상을 디자인한 후, 파라마운트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하면서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의상디자이너로 명성을 얻었다. 애드리안보다 훨씬 부드럽고 유혹적이며, 마들렌느 비오네가 창안한 바이어스 재단과 섬세한 균형감각으로 1930년대 세련된 여성미를 완벽하게 구현하였고²⁷⁾, 뛰어난 안목과 단순한 라인, 클래식 스타일에 대한 세련된 콘셉트로 유명했다²⁸⁾. 1930년대 파라마운트의 유명한 스타들, 클로데트 콜버트(Claudette Colbert), 마를레네 디트리히, 캐롤 롬바드(Carole Lombard), 메이 웨스트(Mae West) 등은 밴튼의 우아한 의상으로 위트와 지성, 아름다움의 전형이 되었다. 그는 폴카 닷 무늬를 선호했으며, 디트리히의 남성복 스타일의 여성복을 만들었다. <Morocco>(1930), <Shanghai Express>(1932), <Blonde Venus>(1932), <The Scarlet Empress>(1934), <The Devil Is a Woman>(1935), <Desire>(1936), <Angel>(1937)에서 그가 디트리히를 위해 디자인했던 의상들은 모두 호화롭고 신비로운 경이감을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0년대에는 프리랜서로 영화의상 디자인을 하였고, 죽을 때까지 영화와 무대연극 디자인 작업을 맡았다.

윌터 플러켓은 역사적인 대작 <바람과 함께 사

라지다>(1939)의 의상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영화는 네오 빅토리안 스타일의 복고풍을 가져왔으며, 의복의 강렬한 색채 상징성을 활용하였다²⁹⁾. 할리우드의 대표적 시대극 의상 디자이너이자 다재다능하고 훌륭한 예술가로 인정을 받은 그는 캐더린 헵번의 의상디자이너로도 유명한데, <Morning Glory>(1933), <Little Women>(1933), <Mary of Scotland>(1936)의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윌터 오리-켈리는 단순하고 고품질의 하이패션 감각으로 명성을 얻었고, 1930년대 연기파 배우 베트 데이비스(Bette Davis)의 통통한 체형의 단점을 감추는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았다³⁰⁾. 이후 1940년대에도 <카사블랑카>(1942)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의상을 디자인하였고, <뜨거운 것이 좋아 Some Like It Hot>(1959)로 아카데미 영화의상상을 수상하였다.

3. 패션 리더로 떠오른 할리우드 스타

할리우드는 글래머와 멋스러운 웃임기의 결정체를 보여주었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상업화되었다. 패션 이미지는 곧 특정 스타의 모습, 화장, 헤어스타일과 동의어가 되었고, 1930년대 절정을 이루어졌다³¹⁾. 역사상 패션과 영화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주소비자인 여성을 타겟으로 할리우드 스타의 영화의상을 상업화하여 영화를 홍보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동경하고 모방했던 할리우드 스타들은 모든 마케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취향과 패션의 결정자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상류층이 누렸던 문화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할리우드 영화가 대중들에게 최신유행 경향을 전파하는 매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의상 디자이너나 패션 잡지, 신문보도의 패션 제안을 직접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이 선호하는 영화 스타의 룩과 머리형을 모방하기를 더 즐겼기 때문이었다³²⁾. 할리우드 스타는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유발하면서 외모나 의복만이 아니라 이들이 구현한 여성 타입으로 일반여성들의 행동, 언어, 몸짓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타들

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글래머를 투영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이들의 영향력으로 화장품의 대중화가 지속되었다³³⁾.

이 시기에 우상시되고 모방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 스타들은 1920년대 스타보다 성숙하고 세련된, 그리고 초연한 이미지의 여성이었다³⁴⁾. 마를레네 디트리히와 함께 당대를 대표했던 스타들로는 그레타 가르보, 조안 크로포드, 캐더린 헵번을 들 수 있다. 그레타 가르보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력한 글래머의 매력에 포함시키면서, 미스테리어에 싸인 삶, 스웨덴 액센트의 발음과 조각과 같은 체형, 그리고 대중들에게 초연하고 냉정한 이미지를 남겼다³⁵⁾. 그녀의 성적매력은 육체적이라기 보다는 낭만적이고 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³⁶⁾ 조안 크로포드는 어깨를 강조한 드레스로 명성을 얻었을 뿐 아니라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이상적인 화장법의 하나로 강렬하고 통통한 입술화장을 선보였다. 캐더린 헵번은 바지와 편안하고 수수한 직물의 남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여 캐주얼한 아메리칸 스포츠웨어를 보여주었다³⁷⁾.

1930년대 당시 영화와 영화의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절정에 달하자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의상을 약간 변형시킨 스타일의 제조와 판촉을 위해 뉴욕에 '모던 머천다이징 사무소(the Modern Merchandising Bureau)'를 설립하였다. 소정의 수수료로 전국 1,400개 이상의 숍에 저렴한 가격대의 복제품을 제공하는 의상 판매와 판촉은 영화제작사들에게 커다란 영화홍보수단이 되었다³⁸⁾. 다른 의류제조업자들도 영화의상을 변형시킨 의상제조에 참여했으며, 국제적인 팬 잡지(fan magazine)들도 할리우드 스타일 전파에 기여했다. 국제 패션의 중심지로 파리보다는 할리우드를 홍보했던 이 잡지들은 자체 생산한 기성복 영화의상을 광고했으며, 집에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종이 옷본을 제공하기도 했다³⁹⁾.

이와 같이 1930년대 현실도피를 위한 대중오락이었던 할리우드 영화는 독점적인 스튜디오 체제 하에서 스타와 그 영화의상을 통해 글래머를 구현하였고, 상업화를 꾀 나간 결과 할리우드 스타는 대중의 우상으로서 대중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III. 1930년대 할리우드 스타 마를레네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

1.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약력

독일 베를린 출신의 마를레네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1901-1992)는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요셉 본 스텐버그 감독(Josef Von Sternberg)의 독일 영화 <The Blue Angel>(1930)에서 주인공 롤라 롤라(Lola-Lola)역을 맡아 28살의 나이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할리우드의 파라마운트사에서 스텐버그 감독과 함께 <Morocco>(1930), <Dishonored>(1931), <Shanghai Express>(1932), <Blonde Venus>(1932), <The Scarlet Empress>(1934), <The Devil Is a Woman>(1935) 등 7편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팜므 파탈(femme fatale)⁴⁰⁾의 스타 이미지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스텐버그 감독과 결별한 후, 에드워드 스타이헨(Edward Steichen), 세실 비튼(Cecil Beaton)과 같은 사진작가와 에른스트 루비치(Ernst Lubitsch) 감독의 영향력 아래 디트리히의 이미지는 에로티시즘을 일으키는 모호한 앤드로지너스 이미지에서 좀더 여성적인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녀는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의 <Angel>(1937), 조지 마샬의 서부극 코메디 <Destry Rides Again>(1939),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Stage Fright>(1950)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2차대전 동안 디트리히를 흠모하는 히틀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녀는 미군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위문공연을 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A Foreign Affair>(1948), <The Monte Carlo Story>(1956), <Witness for the Prosecution>(1957), <Touch of Evil>(1958), <Judgement at Nuremberg>(1961) 등 영화가 성공을 거두었고, 마지막으로 <Just a Gigolo>(1978)에 출연하였다. 1960년대에는 가수가 되었고, 은퇴 후 파리에서 살면서 일체 언론

과의 접촉을 피하였다. 디트리히는 1986년 자신의 일생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Marlene>에 출연하였으며, 1987년에는 자서전 『I Am, Thank God, a Berliner』를 썼다⁴¹⁾.

2. 패션 스타일

영화안팎의 의상을 통해 본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은 양성성(Androgyny), 관능성(Sensualism), 이국성(Exoticism)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양성성(Androgyny)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양성성은 오늘날까지 그녀의 대표적인 이미지인<Morocco>(1930)의 남성복 차림에 잘 나타나 있다<그림 1>.



<그림 1> 담배, 남성적인 포즈의 테일러드 팬츠 룩. <Morocco> 『Screen Style』

금발 머리에 실크 햇, 턱시도 차림의 그녀는 스포티하기보다는 도회적인 세련미와 특유의 자신감으로 우아함을 과시하였고, 글래머러스한 포멀 매니시 룩의 전형이 되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매니시 스타일을 즐겨 입었다. 그리하여 1932년 남성용 슈트 차림으로 프랑스 파리를 활보하였을

때, 경찰관으로부터 옷을 바꾸어 입지 않으면 도시를 떠나야한다는 경고를 받았다⁴²⁾<그림 2>. 당시 도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남성복 차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남성용 테일러드 슈트를 입고 담배를 손에 쥐고, 다리를 벌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등 남성적인 포즈로 사진을 찍은 모습이 대중에 소개되기도 했다<그림 3>. 영화 안팎으로 통일된 디트리히의 매니시 스타일은 자신의 스타이미지 정립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당대의 패션 리더로 만들어주었다.



<그림 2>런던거리의 매니시룩 차림. 1932. 『Fashion: mirror of History』



<그림 3> 남성적인 포즈와 팬츠 슈트. 『Star Style』

디트리히가 남성복을 입는 이유에 대해 밝힌 모션 픽처(Motion Picture) 지의 기사를 보면, “여성복은 한 번 구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유행은 변하여 몇 달마다 다시 구입해야 한다. 많은 여성들에게 차려입는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남성복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만큼 오래도록 입을 수 있다. 진정으로 남성복을 좋아하고 남성복을 입었을 때 내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⁴³⁾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디트리히는 유행에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을 선호하고 자신의 매력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남성복을 선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화 속에서 자주 매춘부나 악역의 팜프파탈을 연기했던 디트리히는 성적 매력을 앞세워 남성을 굴복시키는 강한 남성적 힘을 소유해야 했는데, 포멀한 매니시 스타일이 이러한 남성적인 힘과 관능적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해주었다. 남성복 옷차림의 여성은 남성이 지닌 권력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 진기함으로 주목을 받는 동시에 흥분이나 적대감을 가라앉히면서, 성적으로 매력을 불러일으킨다⁴⁴⁾. 미국의 영화평론가이며, 페미니스트인 몰리 해스켈(Molly Haskell)은 디트리히의 매니시 스타일에 대해 “여성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남성 권위의 전통적인 특성과 성 역할의 분담을 패러디로 표현하였다. 그녀의 인내와 현실주의는 매력과 로맨틱함을 잃지 않았고 반대로 사랑 자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랑의 맹목성만을 거부하였다. 남성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성이 잘못된 자부심과 명예욕을 갖도록 만드는 비평의 가치 체계를 거부하기 위해서 남성적인 태도를 취했다.”⁴⁵⁾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디트리히의 테일러드 팬츠 슈트는 언론을 통해 당시 일반 여성들의 남성복 차림 수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클래식의 하나인 매니시 시크의 원형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이상적인 앤드로지너스 룩의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2) 관능성(Sensualism)

1930년대 글래머 스타일의 대표적인 미적 특성의 하나인 관능성은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도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관능성은 여성 다리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성적 매력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가수로 활동할 만큼 멋진 목소리와 아름다운 다리, 금발머리를 가졌던 디트리히는 1930년대 배우 메이 웨스트(Mae West)가 커다란 가슴으로 성적 매력을 과시할 때, 가슴 대신 자신의 다리를 부각시켰다. 독일영화<Blue Angel>(1930)에서 <그림 4>와 같이 아름다운 다리로 명성을 얻었던 디트리히는 미국영화 <Morocco> 1막에서는 남성복 팬츠차림으로 등장하고, 2막에서 다리의 각선미를 노출함으로써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바지를 입음으로써 다리를 있는 그대로 노출하기보다는 그 윤곽선을 따라 허리에서 힘, 다리로 시선을 유도⁴⁶⁾하여 1920년대 짧아진 스커트로 인한 여성 다리의 노출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적 매력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다리를 다 드러내는 것보다 감춤으로써 호기심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림 4> 다리를 드러낸 과감한 노출.
<The Blue Angel>(1930). www.mptv.net

바지를 입지 않았을 때에는 다리의 각선미가 드러나는 폭이 좁거나 비치는 소재의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했고, 때로는 슬릿이 있는 무릎 아래 오는 스커트로 걸을 때마다 살쩍살쩍 다리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신장 5피트 6인치에 남달리 길지 않으나 각선미가 뛰어난 다리를 가졌던 그녀는 발 크기가 작아 보이고, 섬세한 피팅(fitting)을 요구하는 맞춤형 구두를 선호하였으며, 다양한 색상의 구두보다는 검은색, 브라운이나 네이비 구두에 각각 동일한 색상의 스타킹을 신어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활용하였다. 때로는 발끝에만 어두운 색이 매치된 투톤 구두를 신어서 발은 작아 보이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⁴⁷⁾. 많은 영화와 사진에서 높은 스틸레토 힐을 신은 모습이 유명했던 디트리히는 실제로는 굽이 10cm이상인 구두는 매춘부의 것이라고 싫어하였다⁴⁸⁾.

디트리히의 다리를 부각시키는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홍보 전략도 그녀의 다리가 명성을 얻고 성적 매력을 상징하는데 기여하였다. <Morocco>가 개봉되기 전 파라마운트사는 미국 전역의 도시에 그녀의 늘씬한 다리가 나오는 홍보사진을 게시판에 붙였는데, 할리우드가 실제 여배우의 다리가 나오는 사진을 전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⁴⁹⁾.

이 외에도 디트리히는 <The Devil Is a Woman>(1935)에서 스페인 댄서의 전형적인 맨 다리 대신 레이스 장식의 스타킹으로 다리를 장식하였고 <그림 5>, <Kismet>(1944)에서 골드 메탈릭 페인



<그림 5> 레이스가 아플리케 된 스타킹.
<The Devil Is a Woman> (1935). 『Star Style』

트를 다리에 바르는 모험을 감행하여 결국 모공이 막히면서 세트장에서 혼절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다⁵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원활하지 않은 혈액순환으로 다리가 붓자 이를 가리기 위해 목이 높은 부츠를 디자인하였고, 붓기가 지속될 때에는 붕대와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의 부츠를 마련해두고 영화촬영에 임하였다. 이와 같이 자신의 아름다운 다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 결과 디트리히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얻는데 성공하였고 오늘날까지 멋진 다리의 각선미를 소유한 스타로 남아있다.

3) 이국성(Exoticism)

디트리히는 디자이너 뱅트와 함께 깃털, 베일, 모피, 글리터, 글래머 등 그들의 대표적인 시그니처를 앞세워 이국적인 룩을 창조하였다⁵¹⁾. 할리우드는 일찍부터 이국주의의 글래머를 활용하여 화장품을 마케팅해 왔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배우들을 영화에 등장시켰다. 특히 유럽 출신인 디트리히나 가르보는 ‘패일 익조티시즘(pale exoticism)’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많은 영화에서 ‘오리엔탈화’되었다⁵²⁾.

다채로운 색감이 돋보이는 오늘날의 이국주의와는 다르게 색채를 표현할 수 없는 흑백영화에 표현된 디트리히의 이국주의는 의류소재의 입체감을 강조하는 빛의 반사로 텍스처를 부여하고, 극적인 명암대비를 활용하였다. 즉 모피, 타조털, 망사, 레이스 등 표면감이 다양한 소재, 이국적인 디테일, 세심한 입체화장, 헤어스타일, 장신구, 조명, 극적인 포즈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 결과였다.

혁명 전 러시아 귀족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The Scarlet Empress>(1934)⁵³⁾에서는 그녀가 모피 장식 드레스, 모피 머프와 코사크의 헛을 착용한 모습⁵⁴⁾을 볼 수 있다<그림 6>. 모피는 3차원 표면 위에서 빛의 분산효과와 풍부한 재질감을 표현하여 라메, 새틴과 함께 영화의상에서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소재인데, 여기서는 추운 러시아를 배경으로 디트리히의 차가운 이국적인 매력을 강조해 주었다.



<그림 6> 모피 액세서리와 낭만적 러시아인 룩. <진홍의 여왕>(1934). 『Hollywood and History』



<그림 7> 검은 베일과 깃털장식의 이국주의 룩. <Shanghai Express>(1932) 『In a Glamorous Fashion』

<Shanghai Express>에서는 가족 장감, 검은 베일과 깃털장식의 검은 백조와 같은 모습으로 이국적이면서 매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여러 겹의 깃털로 만든 베일과 터번, 여행용 슈트로 디트리히는 고급취향의 경험 많은 중국 상하이 여성으로 변모했다⁵⁵⁾<그림 7>. 두 영화에서 모피와 깃털장식은 흑백 영화 속에서 컬러가 전달할 수 없는 여성적 매력과 럭셔리 감각을 시각적 촉각으로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동양배우가 그 존재감만으로도 비문명화된 이국의 신비로움과 여성성을 전달하는데 반해 유럽출신의 디트리히는 댄스와 함께 탁월한 의상과 액세서리 선택, 조명 등의 조작을 통해 창백하고 유혹적인 이국미를 투영하였다.

이외에도 <그림 5>와 함께 스페인을 배경으로 한 같은 영화에서 흰 레이스의 정교한 의상은 전형적인 스페인풍의 러플 장식 소매와 케이프, 스카프와 조화를 이루었고, 만틸라 대용의 레이스 모자가 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⁵⁶⁾<그림 8>.

이처럼 디트리히는 이국미를 투영하는데 있어 사치스러운 소재를 풍부히 사용하여 럭셔리 감각을 강조했는데, 파라마운트에서 예외적으로 영화



<그림 8> 레이스 장식 가운. <The Devil Is a Woman> (1935). 『In a Glamorous Fashion』

의상에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녀의 특권 덕택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값비싼 최고

급 의상을 선호⁵⁷⁾했던 디트리히의 하이패션 취향은 스타 이미지와 개인적인 스타일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이국미를 강조하는 디테일이나 실루엣이 지나치게 공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디트리히의 이국주의는 의상 외에도 카메라 각도, 조명 등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 화장과 헤어스타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노력의 결과였다. 조각과 같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 얼굴 위에서 조명을 비추는 방법을 선호하였고, 코뼈를 따라 밝은 파운데이션이나 가는 은색의 선을 발라 그 곳에 조명을 집중시킴으로써 코가 날씬하고 곧고 길어 보이도록 하였다. 눈을 더욱 크고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 눈 바로 아래에 가는 흰색의 라인을 그렸고, 머리 위에서 조명을 비추었을 때 반짝거리는 효과를 주기 위해 붉은 빛이 도는 금발머리에 금가루를 뿌렸다⁵⁸⁾. 눈썹을 뽑고 더 높은 자리에 가늘게 그린 극적인 눈썹은 1930년대 일반여성들 사이에 많은 모방을 불러왔다⁵⁹⁾. 특히 광대뼈를 강조한 입체적인 화장 효과와 가늘게 그린 눈썹, 대담한 액세서리, 손에 든 담배의 피어오르는 연기 등도 디트리히 스타일의 이국성을 매혹적으로 전달하였다<그림 9,10>.



<그림 9> 조명효과로 강조된 매혹적인 분위기. 『Star Style』



<그림 10> 이국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화장과 액세서리. 『Star Style』

IV. 요약 및 결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가져온 획일화와 빠른 주기의 유행 속에서 고전 영화 스타들과 그들의 패션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의 주요 영감이 되었다. 당대를 대표하는 미적 상징인 이들 스타들은 현대인들에게 순수했던 시대에 대한 갈망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시간을 초월하는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 할리우드 패션과 영화 속 배경이 구현한 미적특성에 기원한 글래머는 21세기에도 대중문화 스타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구현되며 주목받고 있다. 1930년대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투영한 성적매력과 럭셔리 감각, 우아함과 낭만적인 매혹이 결합되어 나타난 할리우드 글래머는 당시 할리우드 시스템, 스타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개인맞춤의 영화의상과 디자이너, 그리고 영화팬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상의 상업화를 배경으로 탄생할 수 있었고, 경제공황의 현실을 도피하려는 대중들이 이상시한 할리우드 여성스타들이 패션리더로 떠오르자 이들의 이미지와 결합되었다. 그 중에서 할리우드 글래머를 구현한 대표적인 스타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연구 결과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양성성은 영화안팎에서 세련되고 우아하게 제시된 테일러드 팬츠 슈트 차림에서 잘 나타났으며, 대중들에게 매니시 룩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었다. 유행에 구애받지 않는 클래식을 선호하고 자신의 성적매력을 돋보이게 한 남성복을 선호했던 그녀의 취향은 기존 관습에 대한 저항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으나 궁극적으로 20세기 여성 패션의 커다란 변화인 바지의 대중화, 여성복의 남성화를 통해 여성 관능미의 새로운 표현에 눈뜨게 하였다.

둘째,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관능성은 각선미 뛰어난 다리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뿐 아니라 바지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 슬릿이 있는 긴 치마,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고려한 동색의 구두와 스타킹 매치 등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다리를 성적매력의 상징으로 부각시켰다.

셋째,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이국성은 흑, 백 이미지를 배경으로 모피, 깃털, 레이스 등 사치스럽고 감각적인 소재의 텍스처와 이국적인 디테일, 가는 눈썹과 광대뼈를 강조한 화장, 금가루를 뿌린 헤어, 대담한 장신구, 극적인 조명 효과 등을 적절히 조화시킨 결과이며, 디트리히의 초연한 듯 차갑고 매혹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1930년대 할리우드 스타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에 나타난 양성성은 현대 패션에서 매니시 시크의 정수로 사랑받는 테일러드 팬츠 룩의 양성적 관능미를 이해한 선구자적 면모를 짐작하게 하였다. 또한 다리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게 표현된 관능성은 그녀의 팜므 파탈 스타 이미지와 관련지어서 볼 때 1940년대 필름 느와르 영화에 나타난 팜므 파탈의 성적 기표로서 여배우의 다리와 하이힐이 힘과 섹슈얼리티를 상징하는데 가교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흑백 영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매혹적으로 표현된 디트리히 패션 스타일의 이국성은 현대패션에서 사치스럽고 낭만적인 감성의 소재를 풍부히 사용한 이국적인

룩에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1930년대 할리우드 글래머를 대표하는 스타로서 디트리히의 패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것은 장면마다 살아있는 그녀의 카리스마였다. 영화안팎에서 스타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았던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감독했으며, 완벽한 외모가 성공을 위한 도구이자 권력의 도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1) Wilson, Eric(2005.2.15), "Glamour, Direct From Hollywood", *New York Times*, 검색일자 2005.2.15. www.nytimes.com
- 2) 글래머의 황금기를 192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중반으로 잡고, 1930년대를 특히 절정기로 보았다.
Bond, David (1992), *Glamour in fashion*, London: Guinness Publishing, p.45.
- 3) "glamour" Merriam-webster's Online Dictionary, 검색일자 2005.2.17, www.britannica.com
- 4) Thorp, Margaret Farrand, *America at the Movie*, 1939, FIT 언론홍보자료에서 재인용, 검색일자 2005.2.16, www.fitnyc.suny.edu
- 5) Menkes, Suzy(2003. 8. 7), Style: Designing the Dietrich Mystiqu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검색일자 2005. 9.20. www.ihf.com
- 6) 박주희, 김민자(2005), 1930년대 할리우드에 나타난 글래머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5(6), pp.121-135
최정화(2005), 현대패션에 나타난 글래머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13(5), pp.763-776.
함연자(2003), 현대패션에 나타난 클래식 테일러드 수트의 미적 특성, *복식* 53(6), pp.101-115.
임현주(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팜므 파탈 이미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다수가 있다.
- 7) 가르보는 원래 내성적이고 언론에 노출되는

- 것을 꺼려 변장의 수단으로 편안하고 캐주얼한 남성복 스타일을 선호했다. Fox, Patricia L.(1995), *Star Style: Hollywood Legends as Fashion Icons*, Santa Monica, Calif.: Angel City Press, p.43.
- 캐더린 헵번은 항상 여배우에게 페미닌한 글래머러스 스타일을 강요하던 기존 인습에 저항하며 평소 운동을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편안한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을 선호하여 스포티한 팬츠 룩을 선보였다. Craughwell-Varda, Kathleen(1999), *Looking for Jackie: American Fashion Icons*, New York: Hearst Books, pp.185-186.
- 8) 미국에서만 매주 80,000,000명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David Bond(1992), p.45.
 - 9) Mulvey, Kate & Richard, Melissa(1998), *Decades of Beauty-the Changing Image of Women, 1890s-1990s*, Octopus publishing Group Ltd, p.86.
 - 10) 유니버설(Universal)과 컬럼비아(Columbia)는 제작과 배급망, 유나이티드 아티스트(United Artists)는 배급망만을 운영하였다.
 - 11) Belton, John(저),이형식(역)(2003), *미국영화, 미국문화*, 서울: 경문사, pp.80-82.
 - 12) 임정택 외(2001), *세계영화사 강의*,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127.
 - 13) 이것은 오늘날의 영화배우들이 폭넓은 연기 폭을 지향하며 자신의 스타 이미지가 고정되는 것을 꺼리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 14) Webb, Michael(ed)(1986), *Hollywood-Legend and Realit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p.189.
 - 15) Sarah Berry(2000), *Screen Style: Fashion and Femininity in 1930s Hollywoo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introduction p.16.
 - 16) Bond, David(1992), p.46.
 - 17) 영화와 오프 쿠티르 디자이너 간의 협력은 1931년에 공식적으로 시도된 적이 있는데 MGM의 사무엘 골드윈(Samuel Goldwyn)이 1920년대 최고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을 초빙, 세 편의 영화의상을 제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샤넬의 기능적이고 절제된 디자인이 영화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쿠티르 작품과 영화의상은 다르다는 교훈을 남겼다.
 - 18) Milbank, Caroline Rennolds(1996), *New York Fashion: The Evolution of America Style*, New York: Harry N. Abrams, p.109.
 - 19) Bruzzi, Stella(1997), *Undressing Cinema: Clothing and Identity on the Movies*, London: Routledge, p.4.
 - 20) Mulvey, Kate & Richard, Melissa(1998), p.88
 - 21) Berry, Sarah(2000), introduction p.20.
 - 22) 앞 글.
 - 23) 트래비스 밴튼(Travis Banton)은 뉴욕의 Mme Francis, 하워드 그리어(Howard Greer)는 루실 (Lucile)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으며, 아이린(Irene)은 LA에서 살롱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었다.
 - 24) Craughwell-Varda, Kathleen(1999), p.177.
 - 25) LaVine, W. Robert(1980), *In a Glamorous Fashion: the Fabulous Years of Hollywood Costume Design*, New York: Charles Scribner, p.80.
 - 26) Milbank, Caroline Rennolds(1996),p.146.
 - 27) LaVine, W. Robert(1980), p.63.
 - 28) Bailey, Margaret J.(1982), *Those Glorious Glamour Years-Classical Hollywood Costume Design of the 1930s*, Secaucus: Citadel Press. p.382.
 - 29) LaVine, W. Robert(1980), p.93.
 - 30) Bailey, Margaret J.(1982), p.383.
 - 31) Bond, David(1992), p.45.
 - 32) 앞 글, p.29.
 - 33) Berry, Sarah(2000), p.23.
 - 34) Milbank, Caroline Rennolds(1996), p.98.
 - 35) Mulvey, Kate & Richard, Melissa(1998), p.84.

- 36) Banner, Lois W.(1983), *American Beauty*, Chicago &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280.
- 37) Mulvey, Kate & Richard, Melissa(1998), p.97.
- 38) Maeder, Edward(1989). *Hollywood and History: costume design in film*, New York: Thames & Hudson, p.88.에서 재인용. "Cinema Fashion," *Fortune*, January 1937. p.38, p.44.
- 39) Mendes, Valerie, De La Haye, Amy(1999), *20th Century Fashion*, Thames & Hudson, p.90.
- 40) 남성을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정도로 뇌쇄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 이미지.
Mary Ann Doane은 팜므 파탈의 출현을 산업 혁명에 의한 근대화, 도시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새로운 복제 기술(사진, 영화)에서 찾고 있다. 팜므 파탈은 19세기 후반에 도달한 성적 차이의 이해에 따른 변화에서 파생된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하는 신체가 기계에 의해 소외되어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으로 파묻혀 버렸을 때, 여성 신체는 예술, 문화, 철학에 의해 알레고리화되고 신비화되었다. 재현의 기술로서 근대성의 징표로 태어난 영화가 팜므 파탈의 근거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Mary Ann Doane(1991). *Femmes Fatales: feminism, film theory,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 pp.1-3.
- 41) "Dietrich, Marlene" *Encyclopedia Britannica* from Encyclopedia Britannica Premium Service. www.britannica.com (검색일 2003. 12. 6.)
- 42) Batterberry, M.& Batterberry, A.(1977).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New York: Greenwich House), p.283.
- 43) Berry, Sarah(2000), p.146에서 재인용, Shaffer, "Marlene Dietrich Tells Why She Wears Men's Clothes!" *Motion Picture 70*, 54.
- 44) Rubinstein, Ruth P.(2001). *Dress Code: Meaning and Messages in American culture*, Boulder, Colo.: Westview Press, p.142.
- 45) Haskell, Molly (1987). *From Reverence to Rape: The Treatment of Women on the Movies* (2nd ed.),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12.
- 46) Fox, Patricia L.(1995), p.60.
- 47) 앞 글, pp.54-55.
- 48) Menkes, Suzy(2003. 8. 7).
- 49) Fox, Patricia L.(1995), p.55.
- 50) 앞 글.
- 51) Bailey, Margaret J.(1982), p.137.
- 52) 앞 글, p.111.
- 53) 러시아 여황제 카테리나의 생애를 다룬 역사물로, <Morocco>(1930), <Shanghai Express>(1932)과 함께 이국적인 성적 환타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 54) Bond, David (1992), p.48.
- 55) Bailey, Margaret J.(1982), p.173.
- 56) 앞 글, p.301.
- 57) 앞 글, p.224.
- 58) Fox, Patricia L.(1995), p.62.
- 59) 디트리히는 당대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맥스 팩터(Max Factor)의 손질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의 화장과 머리손질법은 매우 뛰어나 the Film Makeup and Hair Dressers' Union의 명예회원으로 가입된 유일한 스타였다.

(2006년 5월 2일 접수, 2006년 8월 7일 채택)